大邱日報 2006년 09월 22일 004면

공기업 조직진단비 등 추경 279억원 삭감

지방의회 중계석

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용)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심사결과(별첨 수정예산안 내역)를 오는 25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에서 김범일 시장의 공약실천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용역비 3천만원과 △4개 공기업조직진단비 1억1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대구시가 기정예산 3조3천878억원 외에 이번에 추가예산을 요청한 3천467억3천만 원 가운데 총 279억8천800여 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김의식(서구1) 의원은 "경북대는 국립대인데 경북대 칠곡이전과 관련해 시비가 들어가야 하느냐"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차후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권기일(동구2) 의원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2년 전에 개통해놓고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대구시의 협상능력 부재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정순천(수성구1) 의원은 환경녹지국 심사에서 "앞산공원과 팔공산 청소용역비가 2억원 가량인데 두류공원 청소용역비가 7억 원이나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비절감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심사에서 "사업소마다 슬러지재활용비가 틀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책정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성배(달성군1)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시가 지방공기업인력진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며 "감사원 결과가 나온 후 조직인력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며 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했다.

이경호(비례) 의원은 "하수도사용료미수금이 7억원에 달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대책을 물었다.

양명모(북구2) 의원은 "동화집단시설지구 용역사업비를 1억2천만원 책정했는데 자체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어 권대용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